

## 러시아지역 한인민족운동과 유진률

박 환\*

1. 서언
2. 대한제국의 러시아어 번역관
3. 『독립신문』에 투고한 문명개화론자
4. 『대동공보』의 발행인
5. 『대양보』의 발행인
6. 결어

### 1. 서언

俞鎮律, 유가이 니콜라이 페트로비치에 대하여 1909년 12월 10일 하얼빈 총영사관은 <배일적 한인에 대한 조사의 건>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함경북도 경흥 출생이며, 러시아에 귀화하여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유가이라고 한다. 대동공보의 발행인이다. 블라고베센스크의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연령은 35,6세. 윤일병, 러시아의 前職 군인 미하일로프 등과 서로 결탁하고 대동공보를 경영한다.<sup>1)</sup>

\*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 1978, 221-223쪽

라고 적고 있듯이, 1909년 당시 유진률은 러시아에 귀화한 한인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행되고 있던 한글 민족지 대동공보의 발행인으로서 주목된다. 특히 그는 러시아어에 능통한 尹一炳 과 미하이로프 등과 가까운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sup>2)</sup>

『한국독립운동사자료』(국사편찬위원회, 1978) 266쪽을 보면, 유진률이 미하이로프와 가장 친밀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미하이로프와 가장 친밀하며, 대동공보는 주로 유진률의 경영에 속하며 약간 출자하고 있는 것 같다. 주필 겸 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러시아에 귀화하여 니콜라이 페드로비치 유가이라 칭한다. 신문사내에서 기거하나 동인은 조선가에 2개의 가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유진률은 한국민회에 늘 출석하며

2)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권, 안중근편Ⅱ, 二. 辯護士 關係件, 高秘發 第一九號, 高秘發 第一九號, 隆熙四年(一九一〇) 一月 八日,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統監府 總務長官 署理 石塚英藏 앞

유진률과 가까운 인물들인 미하이로프와 윤일병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露國人 미하이로프에 관한 조사사항은 별지와 같으므로 이에 통보하나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 在留韓人이 경영하는 대동공보사장 露國人 미하이로프는 한국에서 러시아어교사였다는 설이 있으나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다고 한다.

미하이로프는 明治三十七年(1904년-필자주) 日露戰爭 당초 헌병대 사령관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오로지 일본군의 정황정찰에 임하였던 자로서 尹煜이란 尹一炳은 이때 露都 유학중이었으나 미하이로프를 따라 같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와서 군사정찰에 종사하여 나타났을 때는 그 선봉에 속했다고 한다.

전쟁강화 후 미하이로프는 정황정찰을 위해 곧 일본으로 갔고 다시 한국으로 전임되어 京城·평양에서 오래 潛在하고 陽德으로부터 元山을 거쳐 북한으로 이 전하여 偵察을 하고 그 임무 종료, 퇴직 후 변호사를 개업하여 스스로 한국인보호로써 任하고 일면 露國 고등정찰을 하여 同國 관현의 뜻을 받아 韓人 조종을 하고 있었다는 評이 있다.

本年 4월 대한매일신보사로 「베테르」 사망의 報가 있자 대동공보의 한인을 모아 추도회를 열고, 그때 京城에는 「베테르」,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내가 있어 한국보호를 天職으로 하며 外人으로서 한국에 동정하는 자는 나와 「베테르」 二人 뿐이라고 연설하고 기념비건설비라 稱하고 참집자로부터 醜金하여 대한매일신보사로 보낸 일 및 露領 폭도에 충기를 주선한 자도 同人이라는 소문이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在留韓人은 痛切히 미하이로프를 신용하고 同人이 한국보호의 天職을 위해 殲死한 영국인 「베테르」와 연령을 같이 하는 것도 一欸라고 尊敬하고 있다고 한다. 연령은 本年 三十八歲라 한다.

또 청년회원으로 동회원의 牛耳를 잡고 있는 것 같다. 청년회는 1908년 11월의 조직이며, 소장자의 결사로 볼 것이며, 현재 회원은 300여명이 있다고 한다.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결함이다. 그리고 동인은 두만강 대안 경흥출신이라고 한다.

특히 유진률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귀화한인으로 부호이며 독립운동가인 최재형과 같이 함북 경흥 출생으로 최재형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측에서는 유진률을 안중근의사 의거의 배후의 인물 중 한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통감부문서』(국사편찬위원회, 2000) 10권, 217쪽에 따르면,

군부의 내정 종합보고 이첩건(1909년 12월 26일)  
 오늘까지 내정한 결과 종합하건데, 이번 사건은 이곳 대동공보사의 이강, 유진률, 러시아 수도 재류 이범진, 미국인 헐버트, 미국의 공립회파인 스티븐슨 살해자 등의 교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됨(하략)

라고 적고 있듯이, 안중근 의거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진률은 1910년 8월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성명회 선언에 서명한 8,624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도<sup>3)</sup> 중요한 역사적 위상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유진률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진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진률의 출생과 러시아어 번역관으로의 활동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신문』에 투고한 그의 글을 통하여 유진률의 사상에 보다 접근해 보고자 한다. 다음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그의 언론활동을 해조신문, 대동공보, 대양보 등을 중심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러시아국적의 조선인의 활동의 한 모습을 밝히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3) 윤병석, 「성명회 선언서의 의의」,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214~229쪽.

## 2. 대한제국의 러시아어 번역관

유진룰은 함경북도 경흥에서 1875년에 출생하였다. 경흥은 두만강 인근 지역에 있는 마을로 일찍부터 러시아와 교역 등 교류가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이었다.<sup>4)</sup> 그러므로 그는 일찍부터 러시아와 친근하였을 것이고 또한 러시아인들과 접할 기회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그는 러시아로 이주하여 조선과의 국경지대인 아지미에 살고 있었다.<sup>5)</sup> 아지미는 1872년에 한인들에 의하여 건설된 마을로 상아지미와 하아지미로 나누어져 있다. 아지미강 약 기슭에 따라 펼쳐져 있으며, 강 양쪽으로 띄엄띄엄 초가집이 지어진 마을 전체 길이는 10 베르스타(10,67km)였다. 마을에는 예배당, 학교, 군초소(병사 12명) 등이 있었다고 한다.<sup>6)</sup>

박영철이 1919년 8월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와서 쓴 여행기에서도<sup>7)</sup> 아지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 아지미 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4) 고승희, 「19세기 후반 함경도 변경지역과 연해주의 교역활동」, 『조선시대사학보』 28, 2004, 175-183쪽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2, 1983, 651쪽.

6) 보리스 박, 니콜라이 부가지 지음,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시대정신, 2004, 78쪽.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7, 17권 의병편 X, 隆熙 四年(一九一〇·明治 四三), (三) 三月, 咸鏡道, 左記. 咸鏡北道警察部長, 警視 陣軍吉内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유진룰과 아지미와의 연관관계는 다음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측에서 1910년 3월 유진룰 등의 동향을 파악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 폭도의 近狀은 左記와 같으므로 茲에 보고한다.

10. 대동공보 경영자인 李剛 유진룰과 金起烈 趙尙元의 徒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를 內偵한 바 梁成春殺害 後 社內에 不和를 초래 舊 一月 三日(頃)부터 신문의 발행을 休止하였다 한다. 그 원인은 浦鹽 부근의 유력자가 동정을 寄하지 않는 결과 드디어 지금에 결핍을 가져와 중지한 것으로 李剛 俞鎮律 金起烈 등은 현재 「아지미」의 居宅에 돌아갔고 趙尙元은 지금 아직 浦鹽에 잔류하고 있으나 하등의 계획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7) 『삼천리』 제10권 제10호, 「海蔘威에 다녀와서」, 1938년 10월 1일, 필자 朴榮喆

## 西伯利亞 조선인교육

이주 조선인의 교육상태는 일반 在任露人の 교육 보다도 勝하다. 遼弓河유역의 코삭크촌에 在任하는 조선인으로 문자를 모르는 사람은 한아도 없었다. 도처마다의 조선인촌락에는 반듯이 1,2개의 학교가 있었다. 또는 유아원도 있었다. 일찍이 前 露國의 감찰관이 岩叢河를 측량할 제 露人을 사용하여 보았는데, 露人은 모다 무식하였지만 조선인은 그러지 않았다. 彼等은 모다 敎育이 重要함을 알고 있어서 金錢을 샀기지 아니하고 학교던지, 敎원이던지 다 完備하고 있었다. 연해주의 阿枝尾촌에서 새로 宗敎학교를 설립할 때 건축비 1만 6천 兩 中 露國에서 보조한 것은 겨우 2천5백 兩였고, 남은 1만 3천 5백 兩는 조선인의 기부금으로 되였다. 조선인 자체는 모다 열심으로 공부하였다. 敎員 中에도 조선인이 많았다. 조선인 학교 中 야소교의 管轄을 受하는 것은 단지 3교에 불과하였고 그 외에는 조선인 獨단으로 받기하여 설립한 학교들이었다. 露國정부는 別段 새로히 학교를 세우려고는 아니하고 다만 既設한 학교에 원조를 할 뿐이었다. 여자학교는 2교 있을 뿐이요, 그 외는 다 남녀混同한 학교였다.

라고 있듯이, 아지미 지역은 교육열이 활발했던 곳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910년 9월에는 아지미 출신 김아력세가 러시아 까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였는데 한인 가운데에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sup>8)</sup>

유진률은 일찍이 러시아에 귀화하였고, 이름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유가이라고도 한다. 그는 전직 연추지역의 都憲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9)</sup> 그러므로 그는 러시아의 지방관 즉, 우리 한국의 군수와 같은 직분을 맡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sup>10)</sup> 그런데 안중근은 그가 노령 시지미의 도현으로 있던 일이 있다고 하고, 시지미는 연추에서

8)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한국보』, 1910년 9월 13일자에 <韓人の 法律學士>라는 제목하에, 아령(러시아령) 아지미거 김아력세 씨는 아라사(러시아) 내지 까잔대학교에서 법률 전문을 졸업하고 수일 전에 해항에 내도하였는데 법률 졸업은 아령(러시아령) 한인 중에 처음 있는 일이며 또 인격이 준수하고 학식이 고명하다는 칭송이 자자하다더라. 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아지미가 구한말에 큰 지역이었음을 준창호의 대리점이 아지미에 있었음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 1978, 227쪽.

10) 위와 같은 책, 450쪽.

블라디보스토크로 오는 도중 101리 가량 되는 곳으로 인구는 수천 호라고 증언하고 있다.<sup>11)</sup>

한국측 기록에 보면, 유진률은 일찍부터 조선에서 러시아어 번역관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언제 러시아로 이주하여 러시아어를 공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블라고베센스크에서 러시아정교신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단편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정도이다. 그가 1896년에 경흥에서 번역관으로 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는 러시아어에 능통한 조선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독립신문』 1897년 9월 7일자 잡보 <아라샤 해삼위 근처 연추 각 지방이 이십 이사인데>에,

러시아 해삼위 근처 연추 각 지방이 이십 이사인데 우거 하는 조선 사람이 이천여 호 중에 일천 사백 오십 칠호는 러시아 백성이 영위 되고 육백여 호는 러시아 백성이 못된 까닭은 술 먹고 잡기 하고 행사 부정한 연고라 러시아 백성 된 일천 사백 오십 칠호 사람들이 돈을 수렴 하여 학교 일곱을 실시 하고 학도를 팔 세 부터 십 세 못된 아이들을 뽑아 공부 시키는데 지금 일곱 학교에 학동도합이 이백 사십 오명이라 대개 학동 중에 행사 부정 하면 학교에서 쫓아내고 단정한 학동만 십육 세 까지 공부 시켜 졸업한 후에 관 중 학교에 보내어 중학교 졸업 후에 일곱 학교 훈장 노릇도 하고 본 지방 각 촌 서기생 노릇도 하고 월급은 사 년 간에 매 년 사백 원씩 주는데 학교비로 매 년 매 호에 사오원씩 수렴 하여 태서 각국 문명한 학문들을 힘써 공부들 한다는데 **그 중에 최봉준씨와 유진률 양씨는 행사가 정직 하고 학문이 정밀하여 대접을 높이 받는다니 이런 사람들은 참 치사할만 하더라**

라고 있듯이, 유진률은 崔鳳俊과 함께 연추지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벼슬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1898년 8월 러시아어 통역관 金鴻陸이 종신 유배되고 그 후 처형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러시아어 통역관들에게는 큰 불안요인

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274-285쪽.

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륙은 함경도 경흥(일설에는 단천이라고 한다)의 천인 출신으로 일찍이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였다. 그 후 러시아에 귀화한 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러시아어와 프랑스어를 읽혔다. 그 후 러시아 공사 K. 베베르가 1884년 조로수호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 부임할 때 통역으로 따라왔다가 그가 체임될 때 고종의 요청에 따라 궁중에 남게 되었다.

러시아세력이 조수처럼 밀려오던 1896년, 그는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피신을 이범진, 이완용 등과 함께 도왔고, 이곳에서 국왕과 러시아 공사와의 사이에 통역을 담당하였다. 이때 국왕은 김홍륙에게 외교교섭의 업무를 독점하게 하니, 그는 종횡으로 정권을 행사해, 국왕을 모시는 최고 수장인 내장원시종이 되었다. 그 후 왕의 총애로 비서원장, 학부협판, 귀족원경 등의 지위에 올랐다. 1898년 8월 사리사육으로 전라남도 지도군 흑산도로 종신 유배되었고, 그 후 처형되었다.<sup>12)</sup>

김홍륙 사건이 있는 직후인 1899년, 대한제국관보에는 유진률이 1899년 8월 24일에 內藏院 種牧課 주사, 1899년 8월 28일에는 궁내부 번역관보로 임명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독립신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독립신문』 1899년 8월 29일자 관보 <팔월 이십오일 김명제는 참령을 임하고>에,

김명제는 참령을 任하고 신태준은 원수부 군무국 부장을 임하고 조철희는 원수부 검사국 부장을 임하고 이석훈은 원수부 회계국 부장을 임하고 조시영은 중추원 의관을 임하고 신태영을 충주 우체사 주사를 임하고 이장우는 개성 전보사 주사를 임하고 한기준은 한성 우체사 주사를 임하고 오병일은 농상공부 주사를 임하고 이재곤은 홍문관 부 학사를 임하고 **유진률은 궁내부 번역관 보를 임하고** 김동걸은 내장원 종목과 주사를 임하고 김석찬은 통신사 전화과 주사를 임하고 안재묵은 효창원 참봉을 임하고 백탁안은 삼정 검찰 사무 대원을 명하다

12) 조재건, 「세치희의 출세와 비참한 최후, 한말 러시아어 통역관 김홍륙」, 『내일을 여는 역사』 32, 2008, 98-106쪽.

라고 하여 유진률을 궁내부 번역관보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진률이 정부에 등용될 수 있었던 것은 1898년 독립신문에 실린 그의 글들이 정계에 알려진 것이 큰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한다.

대한제국관보에서는 유진률이 1900년 1월 20일에는 궁내부 번역관, 1903년 4월 30일에는 주블라디보스토크 通商事務署 서기생으로 임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올러 慶興報에서는 1903년 7월 13일자로 유진률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여 일을 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1904년 5월 24일 度支部大臣 朴定陽이 議政府參政 趙秉式 閣下에게 보낸 <외부소관 海蔘葦통상사무서의 1903-1904년 두해의 각종 비용 등을 예산 밖에서 지출해 달라는 청의서>(外部所管海蔘葦通商事務署七八兩年度棧賞及各費預算外支出請議書 第六十號)에 유진률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1904년 5월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통상사무소에서 서기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外部所管海蔘葦通商事務署七八兩年度棧賞及各費預算外支出請議書 第六十號

本年四月七日 外部大臣署理 第三十號와 五月 日 第四十二號照會로 海蔘葦通商事務署棧賞及交接物品各項費二千六百七十五元八十五錢과 五月十六日 第四十五號照會로 本署自本年一月 至五月所有費額挪用條 八百二十元을 并以算外請撥이온바 查該署가 際茲 露相爭호야 暫行撤廢 이온나 該已用各費을 不得不支出이기로 別紙調書를 從호야 預備金中支出함을 會議에 提出事.

預備金支出調書

一金三千四百九十五元八十五錢 紙貨

海蔘葦通商事務署棧賞及各項費



內計

金二千六百七十五元八十五錢 七年二月至十二月各費

金八百二十元 八年一月至五月各費

另錄

三百元 書記生 俞鎮律 派駐日費 一月起 五月止

四百元 棧費 二月起 五月止

六十元 雇人費 一月起 五月止

六十元 厨子月料 一月起 五月止

合八百二十元

度支部大臣 朴定陽

議政府參政 趙秉式 閣下

光武八年五月二十四日

위와 같은 기록을 통해 볼 때, 유진률은 1896년부터 러시아어 번역관으로서 중앙과 지방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한 러시아에 정통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진률은 1899년에는 학생들을 권면하는 장학금을 출연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즉, 『황성신문』 1899년 4월 11일자에서는, 〈義助勸學〉이라는 제목하에,

일전에 興化學校에서 月終시험을 經하였는데, 주야학 우등이 8인이니, 주학에 이종화 등 4인이고, 야학에 이덕진 등 4인인데 頒賞式은 유진률씨의 의조물로서 행하였더니 유씨의 권학하는 心を 참 치하할만 하더라.

라고 있는 것이다. 그가 출연한 흥화학교는 1898년 11월 5일 특명전권공사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를 둘러보고 온 閔泳煥에 의해 외국어와 선진 기술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 주·야학 과정을 개설하고, 입학시험을 통해 국·한문 解得者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였다.

초등교육보다는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영어, 산술, 지지, 역사, 작문, 토론, 체조 등을 교육하였다.<sup>13)</sup> 즉 조선의 문명화 근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유진률은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여했던 민영환이 세운 흥화학교에 지원을 하였던 것이 주목된다.

### 3. 『독립신문』에 투고한 문명개화론자

유진률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협회에서 간행한 『독립신문』에 여러 번 글을 투고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의 글들이 『독립신문』 1면에 7차례 많은 분량이 실리는 것으로 보아, 당시 유진률이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가 투고한 날짜는 1898년 9월 19일 21일, 10월 15일 17일 18일, 11월 25일 26일 등이다. 1898년 당시 투고자 가운데 가장 많은 투고글<sup>14)</sup> 한 인물이 바로 유진률이다. 그만큼 그는 『독립신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독립협회가 추구하고 있던 개화, 자주, 민권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인물이 아닌가 추정된다.

당시 유진률은 신문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고 있었다. 아마도 경흥에서 번역관 일을 하다 일시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울에 있는 『독립신문』에 투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목되는 글은 1898년 9월 19일자 논설 〈유 지각한 친구의 글〉이다. 이 글은 지각이 있는 친구의 글이란 뜻으로, 주최측에서는 유진률이

13) 김형목, 「사립흥화학교(1898-1911)의 근대교육사상 위치」, 『백산학보』 50, 1998, 289-323쪽.

14) 채백, 「개화기 한국사회의 신문매체 수용에 관한 연구-독립신문의 논설과 독자투고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연구보고서』, 1998, 235쪽.

의견서를 지어 독립신문사에 보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진률은 이 글에서,

**해삼위 우거 하는 유진률씨가 의견서를 지어 본사에 보냈기에 좌에 기재 하노라**  
 세계 창조 된 후에 천 년 전 일이 이천 년 전 보다 다르고 또 이천 년 전 일이 삼천 년 전 보다 다르고 일이 이처럼 변하여 지금 칠천 년에 와서는 백 년 전에 기약지 못 하던 문명이 천하 각국 중에 오직 구미 양주에 빛나니 슬프다  
 세계 창조 시에 인종이 처음에 아시아에서 나서 오대주에 퍼졌거늘 어찌 함으로 아시아 사람은 구미 양주 사람들의 문명에 충하가 이다지 만하뇨. 다름이 아니라 서양 사람은 부지런 하여 물론 무슨 일이든지 알지 못 하는 일이 있으면 수백 년이 지나도 그치지 아니 하고 이치를 궁구히 생각하여 격치 하는 까닭에 **지식이 열려서 지금 문명 진보가 세계에 뛰어 났고 아시아 사람은 한서 두 글자에 깊이 병이 들어 아는 것이 편안 한 것과 인순 하는 것뿐이라.**

라고 하여, 서양 사람은 지식이 열려서 지금 지금 문명 진보가 세계에 뛰어났고, 아시아 사람은 한서 두 글자에 깊이 병이 들어 아는 것이 편안한 것과 인순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유진률은,

**한문에 깊이 병이 들었다** 함은 한문을 못 쓸 글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고로 한문을 공부한 사람이 무슨 이치를 숭상하여 세계에 뛰어난 일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한문 속에서 지금 하는 일이 죽도록 공부 하여도 시전 서전 논어 맹자 권이나 읽고 시부나 지으면 유식하다 하나 그 하는 일을 상고 하여 보면 새로 한문 속에서 정치 학문과 부국 술법은 하나도 없고 헛되이 청춘적 세월을 보내어 옛적 사기나 기록 할 따름이니 사기를 공부 하는 것이 왕사를 알면 지금 형편을 옛적에 비하여 보고 미래사를 조금 아는 지혜가 나는 고로 다만 내 나라 사기만 공부 할 것이 아니라 각국 사기를 공부 하여 어느 때에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결말이 난 것을 보아 그 좋은 일은 가히 취하여 본 받을 것이오 글은 일은 아무쪼록 국 중에 다시 생기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사기를 공부하는 효험이어늘 **한문에 굳은 선배들은 서양 글을 야만의 글이라 하여 읽지도 아니 하고 썩은 나라 글만 읽어 옛적에 하던 일만 하니 무슨 지식이 나리오.**

라고 하여, 한문에 굳은 선배들은 서양 글을 야만의 글이라 하여 ‘읽지도 아니 하고 씩은 나라 글만 읽어 옛적에 하던 일만 하니 무슨 지식이 생기겠는가’ 하고 통탄하고 있다. 이어서 유진률은,

비하건대 우물에 있는 호기가 대해 있는 줄을 모름이라 이제는 아시아 동방 삼국 중에 일본은 구미 양주에 문명을 힘써서 국부 민강 하여 위엄이 동서양에 떨치고, 청국은 남을 압제하다가 도로 압제를 밖에 되고, 대한이 갑오 이후에 우연히 좋은 기회를 얻어 자주 독립 황제국이 되사 국 중에 신문들도 많이 생겨 전국 인민에게 듣도 보도 못 하던 지식을 열어 주며 선배들은 한서를 개간하여 문명 진보 할 이치를 공부하여 후생을 교육 하나 기실은 공효가 없으니 공효 없음은 백성의 그림이 아니요 관인들이 장정을 지키지 아니 하고 일을 아니 하는 까닭이라 지금 눈앞에 위급한 일이 있는 것은 세계 문명한 여러 강국이 이익을 다투는 때라 아시아주 십칠국 중에 여덟 나라는 구주 제강국의 속국도 되고 혹 보호도 입고 아홉 국 나라가 자주 독립국 중에 터키와 청국은 아직 어느 나라에 속국은 아니 되었으나 터키는 대한에서 멀리 있으니 더 말 할 것 없고 당금 목전에 있는 청국이 아범 영 덕 사국에 나누는 기틀을 주었으니 세계사기를 보면 이 일이 첫 번 일이 아니라 구라파에 파란국을 셋에 구주 제국이 난운 형편은 사기 본 사람들이 반드시 알지라 이제 청인이 옛적 일만 좋아하고 진보를 힘쓰지 아니 하다가 저 모양 된 것은 두 번 말 아니 하여도 다 알지라 청국이 저 지경을 당하면 잠잠 하고 있던 대한은 어찌 되리오.

라고 하여, 오늘날은 현실은 세계 강국들이 이익을 다투는 제국주의 시대임으로 옛 일만 좋아하고, 진보를 힘쓰지 않으면 청국에 이어 조선도 망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한 관인들과 선배들은 잠을 깨어 진보를 힘써 보시오 대한에 수삼 번 와 보아도 선배들은 편당이오 벼슬 하는 이들은 권리 돈음이요 기외에 거류 하는 사람들은 십 분에 칠분이 벼슬 청축뿐이라.

대저 학교라 하는 것은 후생을 규모 있게 교육을 시켜 문명과 지식이 열리게 하는 곳인즉 진보에 급한 일이라 문명한 나라에서는 학교 설시하는 법이 상중 하 삼등을 분간 하여 공부 하는 것이 정치학 병학 법률학 화학 의학 천문학 사학(史學) 지리학 이재학(理財學) 상무학 산림학 기계학 농학과 외국 언어와

기의 열어 각 학문을 상 중 하 삼등에 분별 할 뿐이오 대한처럼 외국 언어 배우는데 일 아 영 법 학교를 각기 설 하고 충하 있음은 없는지라 정부나 학부에서 충하를 만든 것이 아니로되 일어 배우는 사람은 일본 개화 좋다 하고 러시아어 배우는 선배들은 러시아 개화가 좋다 하고 영어 배우는 선배들은 영국 개화가 좋다 하여 자기에 권리를 스스로 높여 충하를 만들고 서로 흥보며 편당이 되었으니 어찌 한 임금의 적자가 일어 하리오 물론 어느 나라 언어를 배우든지 좋은 것만 취하여 돈을 받을 것이어늘 언어 배우는 나라만 자세하면 내 나라에 무슨 이로움이 있으리오 (미완)

라고 하여, 제국주의 열강 시대에 잡에서 깨어서, 진보에 힘쓸 것을 역설하고 있다.

즉, 유진률은 당시 『독립신문』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서양은 문명, 문명한 나라로 인식하고 동양은 야만, 미개화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그는 문명은 교육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야만은 사람의 천품이 본래 야만이 아니라 교육을 받디 못해서” 야기된 상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문명화의 핵심을 교육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진률은 『독립신문』에서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서양학문이 문명의 학문이고, 동양학문은 야만의 학문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대조의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sup>15)</sup>

이어서, 『독립신문』 1898년 10월 15일자 논설 〈개탄론〉에서는,

유진률씨가 원래 유 지각한 대한 동포로 러시아 해삼위 근처에 이거 하여 살면서 글을 지어 분사에 보냈기에 좌에 기재 하노라  
어느 신문을 본즉 해삼위에 대한 인민이 거류 하는 자가 수십만(十萬) 구가 되는 고로 해지에 관원을 파송 하여 보호할 일로 정부에서 회의 하여 관원 파송하기를 결정이 될 듯하다 하기에 대강 이는 대로 신문 보시는 제 군자에게 말씀 하오리다.  
40년 전에 러시아에서 애훈 약조에 흑룡강변 좌편과 해삼위 등지 두만강 어구

15) 길진숙, 「독립신문, 매일신문에 수용된 문명/야만 담론의 의미 충위」, 『국어국문학』 136, 2004, 338-340쪽.

까지 청국 땅을 얻었는데 그 때에 대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권력 없는 사람들을 천대 하며 때리며 욕 하며 부리기를 금수같이 부리며 심지어 한 나라, 임금의 적자요 동포이건마는 형제를 종이라 하고 매매 하며 벼슬 하는 관인들은 시골 사람이 힘을 들여 농사를 지어 一年에 자기의 식구먹을 만큼 만들어 놓으면 어진 법률로 생명 재산을 보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이런 사람을 큰 죄인으로 알고 탐재할 생각만 배 속에 가득 차서 각색 죄를 잡아 불효라고도 하며 윤기를 범 한다고도 하여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며 으르기도 하며 주리도 틀며 불로 짓으며 여러 가지로 몹쓸 악형을 하여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탕패가산 하도록 만들어 주며 또 양반은 돈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돈을 취하여 쓰고는 값을 생각은 전혀 아니 하고 만일 빛을 재촉할 지경이면 도로 이심히 여겨 원이나 어사에게나 관찰사에게나 부탁 하여 그 사람을 기어이 거지를 만드니 돈푼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곤욕 당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당할까 하여 각기 위태함을 면 할 길을 찾을 새 혹 서울 와서 재상에게 돈을 주고 등을 대어 만일 이런 화단을 당 하면 구원 하여 달라하며 혹 압제 받은 사람들은 千량 생기는 원을 三万량도 바치고 하여 충군 애민할 생각은 전혀 없고 듣고 보는 것이 모두 탐관오리 뿐이라 그것을 본 받아 기어이 원수를 갚으려고 다른 동포에게 탐재 하여 해를 끼치니 어찌 백성이 알기를 위하여 부자 되기를 원 하리오 그런 양반과 관인의 구습이 갑오 이후에 나라 법률이 경장 하였다 하여도 오늘날 까지 밋뿔이가 썩지 아니 하고 있으며 백성들이 도탄에 들어 본국에서는 압제를 견딜 수 없어서 생도 길을 찾을새 혹은 청국으로도 가며 혹은 러시아에서 새로 얻은 땅으로 가는지라

라고 하여, 조선에서의 압제를 견딜 수 없어 살 길을 찾아 백성들이 중국, 러시아로 새로운 땅을 찾아 이주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가운데 그는 청국보다는 러시아 정부에서 우리 한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 한인들이 러시아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청국에 간 사람들은 청국 인민들에게 압제는 받으나 대한 관인들처럼 재물을 빼앗지는 아니 하기에 거류 하나 청국 법률도 야만의 법률이라 어찌 악한 법률 밑에서 백성이 살기를 바라리오 나중에는 러시아로 많이 이사 하였고 러시아에서는 대한 백성들이 관인의 학정과 양반의 압제를 이기지 못하여 오는 줄을 알고

극진히 생명 재산을 보호 하여 주며 빈땅을 할급하여 농업을 일삼게 하니 수년을 시화 년풍 하다가 우연히 기사년 흉년을 망함에 대한 동포들이 도탄 중에 흉세를 만나 살 수 없으며 노인을 이끌고 아이를 잃고 러시아에 대한 동포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길이 떼혀 러시아땅으로 들어 오나 수년 지은 농사가 어찌 족 하리오. 배가 주려 길에서 죽는 자가 날마다 백명에 가까움에 러시아 관인들이 그 정상을 불쌍히 여겨 정부에 말 하고 군량을 풀어 주린 백성들을 살리며 우마를 사 주며 농업을 시키며 동몽을 교육 시키며 인민을 충하 없이 대접 하고 어진 법률로 다스리니 대만에 있을 때보다 인민이 요순적 풍속을 다시 만는 것 같은지라. 이 소문을 듣고 대만에 여러 백호가 러시아땅으로 연년이 이사 하니 지금 연추 추풍 수청 리포 도비허 망니허 사말니 등지에 농업 하는 백성이 도합四千호나 되는데 일천팔백(一千八百) 九十一년에 러시아 황제께서 대한 인민들에게 칙령을 나리오사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돌아가고 러시아에 입적 할 자는 러시아에 있으라 하신즉 대한 신자의 마음이 되어 어찌 고국으로 돌아 가서 다시 국은을 입어, 성상 폐하께 충군 애국 하는 마음과 선영 분묘를 돌아 볼 마음이 아니 낫하나리오마는 관인에게와 세력 있는 양반들에게 압제와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한편으로는 러시아 황제의 은덕을 많이 입었는지라 거개 러시아 백성이 되고자 하는데 혹은 말 하되 본국에서도 구미 각국 문명을 힘써 진보가 된다 하니 필경 구습은 버리고 어진 법률로 인민을 다스릴 터이니 본국에 돌아가 오백(五百)년 선영에서 섬기던 임금의 신민이 될이라 하고 五十여호쯤 대만으로 돌아 왔다가 불과 二三년 동안에 관인들에게 탕패 가산 하고 본국에 돌아온 일을 애탄히 여기고 (미완)

라고 하여, 한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는 이유에 대하여 친러적인 시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한편 유진률은 『독립신문』 1898년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논설 <유진률씨의 편지>라는 제목 하에 2일 연속 연재하고 있다. 이것은 1898년 11월 4일에 있었던 독립협회 관련 구속사건에 대한 것이다. 즉, 1898년은 독립협회의 운동이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정부의 탄압도 강화된 시기이다. 11월 4일에는 간부 17명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져 대부분 구속되고 윤치호 등 일부는 체포되었던 것이다.<sup>16)</sup>

16)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1985, 99쪽.

유진룡은 이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사람이 세상에 처 하여 말로도 싸움 하여 보며 힘으로도 싸우는 일이 비일 비재라 싸움을 좋아 하는 사람은 본이 천성이 싸우는 마음만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만물 중에 영혼과 신기한 의리를 주어 귀한 물건이 되게 하여 마음은 인의와 신과 지혜와 경계를 두고 쓰는 기계로 주셨건마는 그 기계에 안개처럼 덮인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인즉 욕심이라 욕심이 선한 것과 악한 것 둘에 난우여 신령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선한 일을 도와 옳은 사람이 되게 함에 광명정대 한 욕심이오 신령한 생각을 지키지 못 하고 굽은 길로 들여보내어 꾸부러진 학문만 숭상 할 지경이면 구분 일과 악한 것만 도와 글은 사람이 되게 하니 이는 사욕이라 그런 까닭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자연히 편당이 되어 싸움이 되는 것이라 세상 사람이 다 옳나 다 글을 지경이면 옳은 것과 글은 것이 상지가 될 묘리도 없고 다들 이치도 없건마는 꾸부러진 욕심 가진 사람이 일을 그릇 되게들 하는 까닭에 옳은 의리 가진 사람이 그 일을 보고 참지 못 하는지라 만일 어떤 사람이 가업을 돌보지 아니 하고 후주 잡기를 한다든지 재물을 헛되이 써 버린다든지 하면 그의 가족과 친구는 말고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옳은 목적을 가지고 옳이 듣게 개유 하여 아무쪼록 깨닫게 하여야 옳은 목적의 직무오 그 사람의 가산도 지탱 하겠고 만일 옳고 그른 것을 분간 하면서도 남의 일 보듯이 하거나 개유 하여도 듣지 않는다든가 하면 나중에는 필경 패가 할지라 그런즉 옳은 것을 좃거든 이롭고 그른 것을 좃으면 해로운 것은 자연한 이치라 서양 말에 옳은 일들은 일광 보다 더 밝다는 말이 있으니 뜻인즉 옳은 일이면 꾸부러진 학문에 얼마큼 압제를 받다가도 언제든지 득승 한다는 말이라 사사 일도 이리 하거든 하물며 일대 국사야 더 말 하리오 후이 말 하대 나라가 망할 때면 난민이 성 하여 인심을 소동 하게 하고 정부를 반대한다 하니 이는 꾸부러진 의리를 가지고 무엇이 난민이 되고 무엇이 반대가 되는 이치를 분간을 못 하는 까닭이라 국가의 난민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양법 미규를 가지고 인민의 생명 재산을 극진히 보호 하여 주며 인민의 지세 세입을 걷어 월급을 먹고 그 인민을 아무쪼록 사랑 하여 원통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데에 반대 하여야 난민이지 이것은 정부는 권력만 믿고 꾸부러진 사욕만 가지고 국가 토지와 강산은 어디로 가든지 구차할 지경을 당 하면 외국 공 영사관이나 가서 남에게 의지할 생각만 믿고

항상 폐하의 총명을 옹폐 하며 옳은 일 하는 사람은 반대 한다 하여 압제만 하며 난민이라고도 하며 익명서도 만들어 역적이라고도 하여 남을 해롭게 하여



잠시 내뿜이 리 할 것만 생각 하고

성상계 간 하니 기실은 기군망상 하는 사람들이 난신적자라 나라가 흥 하고 망 하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백성의 직무를 하고 아니 하는데 있는 것이라 만일 정부에서 위로 임금을 존경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 하여 각각 제 직업과 생애가 있게 하여 인락 태평 하도록 법률 규칙을 만들거든 인민은 그 법률이 일 푼 일이라도 어김이 없이 시행 하도록 하여야 나라가 흥 하는 도리오 인민이 자기의 직무를 지키는 본색이라 만일 정부에서 옳은 법률을 마련하여도 백성들이 그 법률을 시행할 생각을 아니 한다면지 정부가 옳은 목적은 버리고 사욕만 가지고 꾸부러진 일을 하여 자기의 직무는 아니 하고 자기 나라 자주 독립 하는 권리를 남을 주지 못 하여 애를 쓰는 것을 보고도 도무지 상관 아니 하고 남의 나라 정부 일 보듯이 하면 나라가 지탱하지 못 할 것이요 백성이 자기의 직무를 잃는 것이고 (미완)

라고 하고, 이어서 1898년 11월 26일 논설에서,

임금을 사랑 하는 마음이 내 목숨 사랑 하는 것만 못 한지라 그런즉 만일 정부에서 나라에 해로운 일을 하거든 기어이 그런 일을 못 하도록 하여 백성들이 임금께 그 말씀 할 권리가 있은즉 만일 万명에서 六千명만 상소 하여 어찌 하니 신용 할 수 없다는 까닭을 분명히 대항제 폐하께 아뢰거든 천하 만국이 중의를 가지고 일을 하는 터인즉, **대항제 폐하께옵서도 어지시고 공평 하사 중민이 좋아 하는 것을 좃으실지라** 그런즉, 임금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꾸부러진 일에는 반대 하여야 백성의 직무인즉 정부가 백성을 말미암아 된 것이요 백성이 정부를 위하여 난 것은 아니라.

근일에 대한 독립 협회 회원들이 충군 애국하는 목적으로 전국 二千万 동포를 대표하여 옳은 의리를 가지고 압제 정부에 학정을 밝히다가 기군 망상 하는 간세배에 참소를 입어 十七인이 갇힌 바가 되매 만민이 더욱 충분 적절 하여 나라를 사랑 하는 마음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 하고 풍찬 노숙 하며 정부의 위협과 함살지계를 받으면서도 옳은 죽음을 원 함에 천고 청비 하사

대항제 폐하께옵서 자극히 홍대한 성덕으로 간소 함을 깨달으사 간세배를 물리치시옵고 十七인을 무죄 방송 하옵시니 옳은 일이 일광보다 더 밝은 줄을 알겠고 대한 관민이 상합 하여 자주 독립 황권을 튼튼히 하여 중흥 하는 기초를 정하는 듯 하니 十七인 방송 된 것을 좋아 말고 간세배의 독한 약이

성충을 다시 옹폐를 못 하도록 하여 億万년에 대한 진보와 국부 병강이라는

말이 계세 상에 펼쳐 진함이 없게 하는 것이 백성의 직무라 옛 사람이 자제 일곱을 두었는데 그들이 합의하지 못 하여 매일 다투기만 함에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나무 일곱 가지를 한데 묶어서 자제들을 불러 주어 말 하되 너희들이 차례로 이 나무 묶은 것을 꺾으라 한즉 하나도 꺾는 자가 없는지라 그 다음에는 그 묶은 것을 풀어 한 가지씩 주며 꺾으라 하니 매 한 가지씩은 꺾기를 비란이 하는지라

그제야 아버지 자제들과 말 하되 너의가 만일 합심 하고 서로 도와 지경이면 이 나무 묶은 것과 같이 튼튼 하여 너의들을 수다할 사람이 해할 마음이 있더라도 해하지 못 할 것이오 만일 합의하지 아니 하고 다투기만 할 지경이면 각기 외로이 진약 하여 나무 한 가지 꺾듯이 너의들을 사람마다 해 할 것이고 재물을 빼앗길지라 하였으니 백성만 합의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 하여 백성은 정부를 믿고 정부는 백성을 사랑 하면 뉘가 감히 침범을 못 할 것이고 국권이 견고 할 것이오 관민이 분심인즉 국권이 미약 하여 옛보는 나라에 해를 당 할 것은 두 번 말 아니 하여도 알지라 세속에 왈 복은 칠수록 소리가 나고 물은 바람이 불수록 파도가 난다하니 정부가 백성을 압제 할수록 억울한 마음이 끌어 오를지라 정부 재공이여 곡사 동락 호아 말로만 일을 말고 실상으로 양법 미규를 실시 하여 인민이 믿게 하고 생명 재산을 극진히 보호 하였으면 백성이 소동할 이치가 만무 할지라 우는 어린 아이를 밥을 주어 달래듯이 일을 하겠다고 말로만 하여 놓고 실시는 아니 하고 사육만 탐 하여 압제만 할 지경이면 대한 위태한 사정을 대 하여 장탄 하노라 (완)

라고 하여, 유진률은 “정부가 백성을 말미암아 된 것이오, 백성이 정부를 위하여 난 것은 아니라”고 하여 국가와 정부의 설립 목적이 국민을 위하는 데 있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흥미있는 기사는 유진률이 서양요리를 할 집을 구하는 광고를 여러 차례 내고 있다는 점이다. 『독립신문』 1898년 12월 2일자 광고는 다음과 같다.

양요리 할 집을 구 하오니 거주(家主) 재공은 만일 집을 세로 주실 뜻이 있사옵거든 매 삭 세전이 얼마며 집 간수를 기록 하여 독립 신문사로 보내시되 집은 정동 근처나 다른 큰 길력어나 있으면 좋겠사옵고 벽돌집이나 벽돌집이 아니라도 집이 크면 좋겠소 유진률

또한 『독립신문』 1899년 9월 28일 〈신문신설〉에서는,

신문 신설: 함경도 사람이 러시아 말을 통할 계책으로 큰 신문을 대한 경성에다 발행 할 주장을 하고 러시아 사정을 대헌에 소개하기로 사무에 관계하여 권동수씨가 이 기계를 상해로 무역하였다고 한보에 말 하였더라

이 신문 실시 한다는 말을 자세히 들은즉 권동수씨가 **궁내부 번역관 유진률씨와 의논하고** 신문 판을 대단히 크게 하기로 작정 하였으나 대한 국내에 있는 활판 기계들은 모두 작아서 그 신문을 박힐 수가 없다 하며 김익승씨의 살던 북송현 집을 권씨가 사서 신문사를 꾸미기로 하고 처음에는 관보과 책판에서 신문을 박히기를 의논 하다가 관보 일이 호변하기로 그도 못 되고 어디 다른 책판에다가 간 일일 하여二千장식 박히기로 하는데 한 달에 돈二百원씩주기로 하였다니 우리는 그 신문 사무가 어서 바빠 발달되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여, 유진률이 러시아사정을 한국에 소개하는 신문을 간행하고자 하였다. 당시 유진률은 궁내부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 4. 『대동공보』의 발행인

가. 『해조신문』 아지미 발매소 책임자

1908년 국내에서 일제의 침략이 더욱 노골화되어 통감정치가 실시되고 있을 무렵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 의하여 해조신문이 간행되었다. 이 신문은 러시아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이 만든 최초의 신문으로, 1908년 2월 26일부터 동년 5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총 75호가 간행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발행된 신문이기는 하지만 『해조신문』은 재러한인의 민족운동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전달

되어 동포들의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sup>17)</sup> 이 『해조신문』의 발행에 유진륜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유진륜은 다만 『해조신문』 연추 아지미 발매소의 책임자로서 해조신문 창간호(1908년 2월 26일) 본사특별광고에 언급되고 있다.

본보를 구람하시는 첨군자에게 편리함을 위하여 내외 각지에 본보 발매소를 설치하오니 첨군자는 기편근을 취하여 **각 발매소로 첨구하심을 경요함.**

대전재 안중현  
시화재 최기선  
소왕령(니콜스크 우스리스크) 김노멋지  
허발포(하바로프스크) 박선달  
니콜라엠프스크 한교  
출남 한명성  
연추(크라스키노) 최재형  
목커위 최동관  
**아지미 유진륜**  
수칭(파르티잔스크) 큰령 조순서  
본국 각지 발매소  
성진항 최운학  
원산항 전승경  
한성 대한매일신보사  
인천항 축현 개신책사  
평양 일신학교 김수철  
개성 남문내 홍학서포  
삼화항 축동 김원섭  
재령읍 제중원 유몽택  
안주읍 법교 김형식  
순천읍 시무학교 강원달  
중화읍 사립학교 이항직

17) 박환, 『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선천읍 안준

발행 급 편집인 최만학, 듀고푸

발행소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 한인 거류지 삼백사십사호

해조신문사

당시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이 최재형을 비롯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므로 보아 유진률 또한 연추 24사 가운데 하나인 아지미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으로서 판단된다.

#### 나. 『대동공보』의 발행

유진률이 언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해조신문』이 폐간되고 최재형이 『대동공보』를<sup>18)</sup> 인수하면서 그와의 친분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다음의 기록들은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11. 俞鎮律

평안도인이라고 하나 鄉貫이 분명치 않다. **崔才亨의 가장 신용하는 자로 현재 『대동공보』 주필로 文章으로써 매일사상 고취에 任하고 있다.**<sup>19)</sup>

현재 공범자로서 체포 구금 중인 자 이외에 블라디보스토크 방면에 在留하는 한인 중 兇行에 관계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의 성명은 이미 이를 조사서에 擧記하고 아울러 그 경력도 概記하였다. 그 위에 조사하였더니 崔才亨(崔在衡 또는 崔才衡 등으로 쓴 곳이 있으나 才亨이다)은 慶興 사람으로 노비의 자식이다. 露名은 「벤티리 최」이며, 嚴仁燮은 崔才亨의 甥姪(女婿가 아니다)이며 露名은 「벤티리 임」이다. 유진률은 평안도 사람이 아니고 崔等과 같이 慶興 사람으로 그 鄉貫이 같아 가장 친근하므로 俞를 拔擢하여 『대동공보』 주필이 되게 한 것이라 한다.

18) 『대동공보』는 구한말 연해주지역의 대표적인 한글 민족지였다.(박환, 『러시아 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19)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권 안중근편Ⅱ, 九. 伊藤博文 被擊事件 真相調査 및 嫌疑者 搜查에 관한 件, 兇行者 及 嫌疑者 調査書, 第三. 共犯者라고 認定할 者의 經歷, 第三. 共犯者라고 認定할 者의 經歷

그리고 同人의 露名은 「아데키세쓰」라고 한다.<sup>20)</sup>

유진률은 『해조신문』이 폐간되자, 차석보, 문창범 등 35인과 함께 발기하여 신문 재간을 위하여 자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sup>21)</sup> 유진률은 『대동공보』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을 선정할 때 발행인으로 선출되었다.<sup>22)</sup> 유진률의 『대동공보』 발간을 주도하였음을 계봉우의 『아령실기』를 통하여도 짐작해 볼 수 있다.<sup>23)</sup>

특히 러시아에 능통했던 유진률은 1908년 5월 28일자로 沿海州 軍知事에게 『대동공보』의 간행을 허락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해주 군지사 각하께 드림

연해주 남우수리강 아지민스카야의 농부이며 마트로스카야 6번지 24-2호에 거주하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유가이 올림  
청원서 각하께 삼가 부탁드리건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하고 있는 한국어 신문인 최봉준이 출판하는 해조신문의 발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제가 최가 소유하고 있는 인쇄소를 양도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신문의 편집자는 퇴역 중령 콘스탄틴 페트로비치 미하일로프가 맡게 될 것입니다. 이 신문은 각하께서 허가한 중전의 원칙하에 『대동공보』(한국의 소식)라는 이름으로 발행될 것입니다. 본인과 미하일로프 중령의 신분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양도와 신문 인수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는 자필 서명으로 증명합니다.<sup>24)</sup>

20)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권 안중근편Ⅱ, 九. 伊藤博文 被擊事件 真相調査 및 嫌疑者 搜查에 關한 件, 兇行者 及 嫌疑者 調査書, 第二. 共犯者에,

21) 『공립신보』 1908년 10월 21일자 <해항의 신문 발기>

22) 『신한민보』 1909년 4월 14일자 <원동소식>

23) 『독립신문』 1920년 4월 8일, 아령실기 12. 7. 교육(속),

五. 신문잡지와와 교육 紀元四二四〇年에 車錫甫氏의 주동으로 비로소 晨鐘이란 잡지를 石印刊行하다가 俄官의 금지를 당하고 또 崔鳳俊氏는 활자를 구입하여 海潮新聞을 간행할새 그 주필은 鄭淳萬 張志淵 李剛 諸氏가 계승담임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至하여 사실로 인하여 정간되고 또 俞鎮律氏의 主謀로 大同公報가 간행되야 李剛氏가 주필로 專務하였고

이처럼 유진률은 연해주 군무지사에게 『대동공보』를 간행할 수 있도록 호소하였고, 유진률의 청원이 있는 후 신문 간행이 허가되었다. 그 허가 내용을 연해주 내무부 제1부 제2과 과장이 확인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25)</sup>

#### 증명서

연해주 군지사(총독)에 의해 1905년 11월 24일 칙명에 따라 연해주 남우수리군 농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유가이어에게 발급한 것의 내용은 그에게 한인 거주지에 소재하는 개인 인쇄소에서 편집자 감독하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늘부터 신문 발행을 허가한다. 이 신문은 축제일 다음날을 제외한 매일 『대동공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발행된다. 첫째,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여타 한인의 관심 대상이 되는 유럽국가들의 현안에 관한 기사, 둘째, 해외의 소식들, 셋째, 한국과 인접 국가의 뉴스 등을 게재할 계획이다. 정기 구독료는 1년에 5루블이며, 한 부당 가격은 5 코페이카이다. 상기 내용을 서명으로 증명하고 도장을 추가한다.  
과장

신문의 간행이 허가되자 1908년 8월 15일(러시아력-이하 러력으로 약함)에 제1차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고,<sup>26)</sup> 그 회의에서 유진률, 차석보, 문창범 등 35인의 발기로 신문을 간행하기로 결정하였다.<sup>27)</sup> 그리고 『해조신문』의 사장이었던 최봉준으로부터 인쇄기, 활자 등 신문의 간행에 필요한 제반 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모으기로

24) ЕГО ПРЕВОСХОДИТЕЛЬСТВУ Господину Военному Губернатору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연해주 군지사 각하께), 연해주 남우수리강 아지민스카야 읍의 농부이며 마트로스카야 6번지 24-2호에 거주하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유가이어가 1908년 5월 28일자에 올린 Прошение(청원서), 러시아 톰스크 문서보관소 소장.

25) М. В. Д. ВОЕННОМУ ГУБЕРНАТОРУ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Област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Отделение I. Стол II, 16 Марта 1910 No. 12163 Г. Владивосток (내무부 지방행정담당 연해주 군지사 제1부 제2과 1910년 3월 16일 12163번 블라디보스토크시)의 증명서 (톰스크 문서보관소 소장)

26) 『대동공보』 1909년 6월 6일자 기사 <討宿虎衡鼻>

27) 『공립신보』 1908년 10월 21일자 잡보

하였다. 그리고 9월 1일에 창간호를 간행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여의치 않아 지연되던 중 발기인 가운데 1인인 차석보의 담보로 최봉준으로부터 인쇄시설 등을 구입하여<sup>28)</sup> 1908년 11월 18일 그 창간호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다.<sup>29)</sup>

신문사가 창립되자 『대동공보』사에서는 신문의 주요 간부를 임명하였다. 사장에는 활자 및 기계 구입에 노력한 차석보가, 발행인 겸 편집인은 유진륜이, 주필은 尹弼鳳이, 회계는 李春植이, 지방계는 朴馨柳, 기자는 李剛, 발행 명의인은 러시아인 미하일로프(К. М. Михайлов)가 각각 담당하였다.<sup>30)</sup> 즉 유진륜은 『대동공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한편 유진륜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靑年敦義會에서 활동하였다. 이회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1909년 4월에 창립된 단체로서 회장은 金致寶가 담당하고 있었다.<sup>31)</sup> 그리고 유진륜은 약간의 자산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 조선거리에 두 채의 집이 있었으며, 200루블 정도를 융통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32)</sup>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발행 명의인 겸 주필이 러시아인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 러시아인의 한인 배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군 휴직 중령으로서 당시 소송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던 인물인 미하일로프를<sup>33)</sup> 내세움으로써 러시아 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신문을 간행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미하일로프가 『대동공보』에 관여하게 된 것은 유진륜에 의해서인 것 같다. 유진륜은 그와

28) 『대동공보』 1909년 6월 6일자 기사

29) 『대동공보』 1909년 5월 24일자 1면 참조

30) 『倭政文書 甲九 在露韓人關係 明治 四十三年 自一月至九月』(이하 왜정갑구로 약칭) 1910년 1월 20일 보고

31) 『왜정갑구』 1910년 1월 20일 보고

3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1980, 978쪽, 980-981쪽

33) 위의 책, 980-981쪽.



가장 친밀한 인물로 파악되고 있는데,<sup>34)</sup> 미하일로프는 자신이 안중근의 변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여순으로 떠나는 1909년 11월 13일까지 발행명의인을 담당하였다.<sup>35)</sup>

러시아 연해주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러시아에 귀화한 인물들이었다. 최재형의 러시아 이름은 최 페차(Петя)이며,<sup>36)</sup> 차석보는 니콜라이 미하이로위치 차가이이다.<sup>37)</sup> 이들은 대부분 일찍부터 러시아로 이주하여 살던 인물들이 아닌가 한다. 최재형의 경우 9세에 연해주로 망명한 인물이었으며,<sup>38)</sup> 이들이 대체로 『대동공보』의 운영을 맡았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대동공보』는 1908년 11월 18일 창간된 이후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간행되었으나 여러 번 우여곡절로 인하여 정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신한민보』 1909년 4월 14일자 기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해삼위 동포의 이목으로 발간되는 신문은 아직껏 임자를 만나지 못하여 여러 번 발간하다가 여러 번 정간이 됨으로 우리가 심히 애달게 알던 바더니

라고 하였다.

재정문제로 1909년 1월 20일에 신문이 간행된 이후 1달여 동안 신문이 간행되지 못하자<sup>39)</sup> 사주인 최재형, 유진률, 이상운, 박인협, 차석보, 고상준 등의 발기로 1909년 1월 31일 특별 고주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석한 70여명의 고주들은 『대동공보』를 다시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행할 일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였다.

34) 위와 같음.

35) 위의 책, 977-978쪽

36)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독립유공자공훈록』 5, 806쪽.

37) 『노령이주상태』, 166쪽.

38)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독립유공자공훈록』 5, 806쪽.

39) 『대동공보』 1909년 3월 3일자

1. 본사에서 새로 선정한 임원은 사장에 최재형, 부사장에 이상운, 발행인에 유진률, 총무에 박인협, 재무에 이상운
1. 본사에서 고금을 거두는데 편의함을 위하여 매달 5원씩 나누어 받되 매달 초 일일에 받게 한다.
1. 본사에서는 주필 미하일로프씨의 성의를 치하하기 위하여 본사 사장 이하 각 임원과 고주들이 모여 연회를 열고 씨를 청하여 치하하는 글을 써주다. 주필 미하일로프가 재정난을 알고 월급 100원을 받지 않고 명예로 시무
1. 본사에서 신문 기계와 잡물을 매입하였는데 기금은 차석보에게 대용하고 매달 백원씩 감보하기로 한다.<sup>40)</sup> (맞춤법--필자)

#### 다. 유진률과 안중근

유진률이 발행인이었던 『대동공보』는 안중근의거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중근은 러시아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한 인물로서<sup>41)</sup> 『대동공보』사 사장 최재형이 회장인 동의회의 구성원이었다.<sup>42)</sup> 그리고 이등박문의 암살 모의가 『대동공보』사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즉 1909년 10월 10일 『대동공보』사의 사무실에서 『대동공보』사의 유진률, 정재관, 이강, 윤일병, 정순만, 禹德淳 등이 모인 가운데 이등박문의 암살을 위한 조직이 이루어졌다.<sup>43)</sup> 그리고 그와 가까운 동료들이 『대동공보』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특히 주필인 이강은 안중근과 의형제라는 설이 있을 정도였다.<sup>44)</sup> 뿐만 아니라 안중근과 함께 의거에 참여했던 우덕순, 曹道先 등도 『대동공보』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다.<sup>45)</sup> 그러므로 『대동공보』에서는 이 사건에 보다 특별한 관심을 보여 연일 대서 특필하였으며, 주필인 미하일로프를 변호사로서 여순에

40) 『대동공보』 1909년 3월 3일자 사설

41) 신용하, 「안중근의 사상과 의병운동」,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164-193쪽.

42)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1909년 安重根及合邦에 관한 서류(2) 12748

43) 신용하, 위의 논문, 179-180쪽.

4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981쪽.

45) 위와 같음

파견까지 하였던 것이다.<sup>46)</sup> 또한 국내에서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사가 신속 정확히 보도되지 못한데 비하여 해외에 있던 이 신문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여 그 사실이 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대동공보』에서는 1909년 11월 18일자 외보 〈의사의 素性〉이라는 기사에서부터 1910년 5월 12일자 제국통신에서 안중근의 사형광경을 보도하기까지 체포시부터 사형에 이르는 동안의 안중근의 동향과 재판과정, 신문과정 등에 대하여 소상히 보도하고 있다.

안중근의 이러한 의거는 재러동포들에게 민족의식의 고취라는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즉 『대동공보』사 또는 러시아 각 지역의 재러 한인사회 주최로 안의사 추도회가 개최되었다.<sup>47)</sup>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서는 유진률, 최봉준, 金秉學, 金學滿 등에 의하여 안응칠유족구제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sup>48)</sup>

한편 1910년 일제에 의한 조선 강점이 더욱 현실화 되자 『대동공보』에서는 일제의 조선 강점에 반대하는 각지의 의견을 기사화하였다. 이처럼 활발한 언론 활동을 전개하던 『대동공보』도 일제에 의하여 1910년 8월 29일 조선이 강점당하자 1910년 9월 1일자를 마지막으로 러시아정부에 의하여 폐간되기에 이르렀다.<sup>49)</sup> 마지막호에서 논설 〈今日〉을 통하여 『대동공보』에서는 일제의 조선 강점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칼을 잡으며 창을 메고 피를 흘려야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임을 주창하였다. 한편 『대동공보』 발행인이었던 유진률은 국내의 항일신문인 『대한매일신보』의 기자 林崑正과 편지로 교류하고 있었다.<sup>50)</sup>

46) 『대동공보』 1909년 12월 5일자 제국통신

47) 『대동공보』 1910년 4월 24일자 제국통신에 〈안중근추도회〉, 잡보에 〈안의사추도회〉 등의 기사가 보인다. 그리고 1910년 4월 24일 광고에서는 1910년 4월 26일 안중근추도회를 한민학교에서 개최할 것임을 공고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안중근 추도회는 러시아의 각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사는 『대동공보』에 자주 산견되고 있다.

48) 『왜정잡구』 1910년 1월 20일 보고

49) 연해주 지방행정 담당 제1부 제1과에서 1910년 8월 25일자로 블라디보스토크 경찰에게 보낸 문서, NO. 39325

50) 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문서』, 6권, 1999, p.174.

## 5. 『대양보』의 발행인

### 가. 『대양보』의 간행 추진

『대동공보』는 1910년 8월 러시아 관헌으로부터 발행금지를 통고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내무부 연해주 군지사 산하의 블라디보스토크시 지방행정담당 제1부 제2과에서 러시아력 1910년 8월 25일자 NO. 39325로 블라디보스토크시 경찰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즉,

군사규정 19조 14항에 근거하여 올해 8월 24일 22호로 나온 아무르연안 총지사의 명령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신문 『대동공보』를 폐간시킵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전하면서 각하께 편집 및 발행인에게 신문 발행 중단에 대한 서명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이행치 않을 시에는 발행된 신문을 압수하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통보해줄 것을 제안합니다.<sup>51)</sup>

라고 하여 군사규정 19조 14항에 근거하여 러시아력 1910년 8월 24일자로 발표된 아무르연안 총지사의 명령에 따라 1910년 9월 1일 폐간되었다.<sup>52)</sup> 이에 유진롤은 러시아력 1911년 4월 26일에 자신의 명의로 軍知事에게 다음과 같이 『대양보』 간행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3)</sup>

51)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му Полиций мей стеру(블라디보스토크 경찰에게), 내무부 연해주 군지사 지방행정담당 제1부 제2과 1910년 8월 25일 NO. 39325 블라디보스토크시, 톱스크 문서보관소 소장.

52) 스탄틴 페트로비치 미하일로프도 1910년 2월 15일자로 연해주 군지사에게 『대동공보』가 폐간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Господину Военному Губернатору При 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15 Февраля 1910 года)

53) ЕГО ПРЕВОСХОДИТЕЛЬСТВУ Господину Военному Губернатору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연해주 군지사 각하께), 한국 인쇄소 소유주 연해주 남우수리군 시디미 아디민스카야음 농민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유가이의 청원서, 톱스크 문서보관소 소장.

본인은 각하께 삼가바라옵건데, 블라디보스토크시에서 이미 허락하신 인쇄소를 이용, “대양보”라는 제명의 한국어신문을 발행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름은 “큰 바다 소식”이라는 뜻이며, 이 신문의 편집은 제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르연안 지방 한국인 주민 사이의 한국어 신문 발행의 욕구는 매우 강렬합니다. “대양보”는 유일한 도덕 교육 및 진보적 경제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시아 유일의 친러시아적 신문이 되어 간첩 활동과 무력에 기초하는 일본의 극동정책을 유럽의 문명세계 앞에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시 1911년 4월 26일

즉, 유진률 등은 『대양보』가 아시아 유일의 친러시아적인 신문이 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면서 군지사에게 신문 발행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러시아 당국에서는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그것은 1910년 7월 4일에 일러양국 사이에 제2회 일러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 러시아측은 일본측이 요구한 한인취체 및 일본인의 보호 요청을 허락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sup>54)</sup>

이에 그들은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람을 파견하여 李甲, 이위종 등에게 협력을 요청하였다.<sup>55)</sup> 중앙정부에서 어떤 교섭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결과 러시아력 1911년 5월 5일에 이르러 군지사로부터 신문발행 허가증명서를 얻게 되었다.<sup>56)</sup> 그 내용은 러시아력 1905년 11월 24일 공포 칙령에 기초해서 우스리스크군에 거주하는 유진률에 대해서 러시아력 1911년 5월 5일부터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 2회 조선어 신문 『대양보』를 인쇄해서 간행하는 일을 허가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신문의 내용과 가격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즉, 내용은 조선, 일본, 청국, 기타 조선인의 이해 관계가 있는 구주 제국의

54) 劉孝鍾, 「極東ロシアにおける朝鮮民族運動」, 『조선사연구회논문집』 22, 1985, 137-144쪽.

55) 『노령이주상태』, 86쪽.

56) 위와 같음.

시사문제, 외보, 조선 및 이웃나라의 잡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신문 가격은 1년에 4루블, 6개월에 2루블 50코페이카, 1개월에 50코페이카, 1부에 4코페이카 등이었다.<sup>57)</sup>

발행소는 신개척리에 신축하기로 하고 일부는 신문사로, 일부는 도서관으로하기로 예정하였다. 그리고 건축비는 이종호와 최재형이 부담하기로 하고, 가옥 낙성에 이르기까지는 一番川 정거장 앞 러시아소 학교 2층(아무루스카야 89번지)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sup>58)</sup> 그리고 신문의 명칭은 『대양보』라고 개칭하였으며, 러시아력 6월 1일자로 제1호를 발간하기로 결의하고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사장 최재형, 주필 신채호, 총무 차석보, 발행인 金大奎, 노문번역 유진률, 회계 김규섭, 서기 김만식, 集金係 이춘식<sup>59)</sup>

명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진률은 러시아어 번역을 담당하였다.<sup>60)</sup> 신채호를<sup>61)</sup>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동공보』에서 일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대양보』는 러시아의 귀화한인세력이 중심이 되어 간행하면서,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이름이 높았고,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고 있던 신채호를 주필로 영입한 경우이다.<sup>62)</sup> 그리고 이들은 이 지역의 한인단체인 靑年勤業會의 기관지로서 이 신문을 발행하였던 것이다.<sup>63)</sup>

57) 위의 자료, 87쪽.

5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7, 2001, 3쪽.

59) 「노령이주상태」, 87-88쪽,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1990년, 1992년에 간행된 『도산안창호자료집(1)』, 『도산안창호자료집(3)』에 실린 편지 중, 유진률이 1911년 8월 23일자로 안창호에 부친 편지에 따르면 유진률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다. 대양보 8호에는 편집 겸 발행인으로 되어 있다.

60) 임원 선정의 경우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최재형의 경우도 창간에 축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이호룡, 『신채호 다시 읽기』, 돌베개, 2013, 89쪽. 주 42번 참조).

61) 신채호의 『대양보』에서의 활동에 대하여는 이호룡의 저서가 참조된다.

62) 최기영, 「일제강점기 신채호의 언론활동」, 『한국사학사학보』 3, 2001, 203-205쪽.

6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도산안창호자료집(1)』, 378-379쪽.

『대양보』는 1911년 7월 16일 청년근업회와 권업회발기회가 권업회로 통합되면서 권업회의 기관지로 기능하였다. 『대양보』 5호의 논설 제목이 〈권업회에 대하여〉인 것으로 보아 5호부터 권업회의 기관지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sup>64)</sup> 이때 유진률은 이종호와 함께 신문부에 임명되었다.<sup>65)</sup>

### 나. 유진률의 사퇴

『대양보』는 곧 발행인 겸 편집인에 유진률을 임명하고<sup>66)</sup>, 『대양보』의 간행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미주 국민회 계열이며, 유진률과 가까이 지냈던 안창호 계열의 白元甫가 갑자기 경찰서에 구인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1911년 6월 14일(러력 6월 1일)에 그 첫 호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연기되어, 1911년 6월 18일(러력 6월 5일)에 창간호가 발행되었다.<sup>67)</sup> 한글 신문인 『대양보』는 『대동공보』와 유사한 체제를 갖추었으며, 제1호에는 사설, 논설(창간에 있어 노령동포에게 고한다), 내국전보(러시아), 외국전보, 각국통신, 최근시사, 논설, 잡보, 대한통신, 만필, 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sup>68)</sup>

내용은 일본의 정책을 비난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현재 한글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항일적인 기사들을 일본이 채록하여 일본어로 번역한 것만이 남아 있는데, 3호(1911.7.6.), 4호(1911.7.15.), 5호(1911.7.21.), 6호(1911.7.27.), 7호(1911.8.4.), 8호(1911.8.27.), 10호(1911.9.3.), 11호(1911.9.7.), 12호(1911.9.10.), 13호(1911.9.14.) 등이 그것들이다.<sup>69)</sup> 이들 신문의 내용들에는 ‘金과 玉’이라고 하여

64) 이호룡, 위의 책, 92쪽.

65) 『권업신문』 1912년 12월 19일자 권업회연혁

6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7, 3쪽.

67) 『노령이주상태』, 88-90쪽.

6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7, 3쪽.

6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7, 3-33쪽.

한국사에 나타나는 인물에 관한 간단한 사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談叢”이라는 난에서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申雪禮傳 등을 실었다. 아마도 신채호가 담당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sup>70)</sup>

『대양보』는 그 후 7호(1911.7.30.)까지 간행하다가 유진륜과 이종호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겨 휴간하게 되었다. 그 후 의견 조정으로 8월 27일 제8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또 9호는 8월 27일 목요일이 정기 간행일이었으나 2일 늦추어 국치일인 29일에 일제의 조선강점 특집호를 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항일에 대한 것이었으며, 평소 300부 간행하던 것을 1,400부를 간행하여 무료로 배부하였다. 그러나 『대양보』는 13호를 내고 또 유진륜과 이종호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9월 14일 발행인 겸 편집인 유진륜이 사직하기에 이르렀다.<sup>71)</sup>

결국 유진륜이 『대양보』에서 퇴진하게 된 이유는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의 세도가이며, 함경도 그룹과 가깝던, 이종호와의 갈등 관계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대양보』 13호에 게재된 유진륜의 글이 논조가 너무 과격하다고 하여 이종호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유진륜이 직접 이갑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그 갈등의 일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유진륜이 이갑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12년) 2월 25일

日昨에 惠函을 伏承하오니 입원 치료하시와 차도가 有하시다 하오니 일간 快復이 되셨는지 사모하오며 수만이 맞게 客을 지어 旅窓寒燭에 와신상담하시는 苦學이 何如하시옵나잇가? 망국노의 言이 이곳까지 及하야 安廣澤(안창호) 氏는 俄領에 있는 동포를 영구히 이별한 듯하오며 大양보의 출간됨을 有始有終하기를 희망하신다 하얏사오나 亡國種의 찌꺼기로 더부러 일할 수 도무지 업사오니 이 일을 장차 잊지하옵나잇가?

라고 하여 유진륜은 안창호가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에 대하여 깊은

70) 최기영, 위의 논문, 206쪽.

71) 『노령이주상태』, 91쪽.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못함을 섭섭해 하면서, 안창호의 기대와는 달리 『대양보』를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처리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어서 유진률은,

승監에 近親한 李氏 本港에 勸業會를 組織하옵고 印許는 아직 밧지 못하야시나 已往 잇던 勸業會와 會臺하고 規程을 새로 起草하며 會名을 고쳐 勸業會라 하얏기로 弟가 本이 已往 勸業會의 委託으로 大洋報의 發行之任을 거행하야 사웁기에 이 事勢를 따라 발행의 委任이 無效하기로 새로 조직된 勸業會에 이 事件에 대하여 발행의 勸을 엇더하게 조치할는지 公函을 送모하얏삽더니 通知가 無하기에 其後 二次 편지하고 대양보를 회사하고 나아 갖사웁다가 지금 다시 발간되얏사오나 또 몇날에 無終할난지 알 수 엇사오며 일단 일을 보더라도 단체를 조직한다 하는 輩가 사회에 유익한 일은 조금도 돕지 아니하라 하고 編黨을 지어 지방적 觀點에만 사투하려 하는 주선뿐이오니 일에 나아갈 생각이 도무지 업소이다.

라고 하여, 권업회, 근업회 등 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이 조직들이 이종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양보』의 간행 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유진률은 이종호, 김익용 등에 대하여 “사회에 有益한 일은 조금도 돕지 아니하라 하고 編黨을 지어 地方的 觀點에만 사투하려 하는 주선뿐이오니”라고 이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진률은

金成武는 일간 본향에 왔다가 불한당의 명예를 꺾고 봉미산으로 돌아가고 黃公道는 거짓말장이라하고 이 씨에게 질문까지 당한 일이 잇사오니 이는 다 김익용의 주선인 듯하와다. 김익용의 행위를 신보에 공포하러 하옵는 것을 이에 送모하오니 회가가 잇사웁거던 살피옵소서.

리 씨는 지금 弟와 한 가지로 근업회에서 신문원의 임을 보옵나이다. 일간 處사은즉 근업회의 인허가 (이)상설 씨로 말미암아 되지 아니한다 하야 북파의 계파가 새로 합하야 일이 성취된다 하옵니다. 대양보 경비는 리 씨가 조달하엿사웁. 김병옥 씨는 十有年 보지 못한 회포가 益切 하지오마는 씨가 몇 번 편지에 一次 회답이 잇사웁기에 붓되잡기를 더

라고 하여, 유진륜이 이종호가 지금 유진륜과 함께 근업회에서 신문원으로 일을 보고 있으며, 『대양보』 경비는 이종호가 지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유진륜과 이종호의 갈등관계는 백원보, 黃公道 등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먼저 황공도가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1년 7월 18일, 음력)을 보면,

第二步에 僅業會를 台하여 신문을 차지하고 凡事에 제 主意로 하려다가 일반 청년의게 공격을 당하고 派黨의 苦計로 유진륜씨를 꼬이다가 반동으로 當하여 數三週 신문 정간을 당하고 俞(진륜) 氏가 (김)益庸을 自將擊之까지 하여시대 녀을 일코

라고 있듯이, 이종호, 엄인섭, 김익용 등이 근업회를 기초로 하여 신문을 차지하는 한편 함경도 출신인 유진륜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당하여 수삼주 동안 신문이 정간되었다. 또한 1911년 11월 21일자 〈백원보가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에,

신문(大洋)은 필경 更刊치 못할 勢이옵고 申(채호) 박사는 현금 당지를 離發하여 상해 등지로 前往코져 심분 작정이온데 포와(하와이)에서 李恒愚 씨가 주필을 사면한다고 顧聘하는 書도 직접으로 有하오며, 弟는 미주에서 신 박사로 爲하여 의결되엿다는 等 설을 전달하여 何境까지든지 원동에서 書役に 종사케 아니되면 (북)미·포(하와이) 兩地間 擇去하기를 권고하얏사오나 신(채호) 씨는 耿介한 人으로 오제의 局小한 취지가 有할가 하는 의려로 所謂 당파로 사업 진취하는 곳에는 厯態가 有하오이다. 然이나 이즉 거취를 확정치 못하고 諸 방면 동정을 관찰하는 중이오이다.

라고 하여, 『대양보』를 재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과 신문사의 신채호가 상해 등지로 떠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유진륜은 백원보를 통하여 『대양보』는 이종호 개인의 신문이니 후원하지 말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을 정도였다.

大洋(報)이 如此하옵에 유진률씨가 제에게 託語호되 도산(안창호)이 向者에 대양보를 위하여 이백貨 捐助 언약한 것은 아주 破約케 하라고 청탁이오니 該 이백원 연조하시겟다 작정한 것은 후일 당지 신문 소식을 因하여 可습케 하시옵소서. 현금은 이중호의 개인적 신문뿐더러 신문 발간은 那時에 有할지 難期한 경우에 이백金式 虛付치 못하겠소이다.

유진률과 이중호, 양자 간의 갈등관계를 틈타 1919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총영사관의 통역관 木藤은 밀정 엄인섭에게 『대양보』의 활자를 절취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대양보』가 『대동공보』의 후신으로 1911년 6월 이래 맹렬히 배일을 고취시키여 조선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sup>72)</sup> 이로 인해 『대양보』는 9월 17일에 정간되었으며, 결국 속간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유진률은 『대양보』에서 사퇴하게 된다.<sup>73)</sup>

한편 『대양보』에서는 유진률의 후임으로 러시아인 포랴노브스키, 듀꼬프, 판데레프(Панделев) 등 3명을 명예직으로 추천, 임명하고 다시 신문의 간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9월 17일 밤 약 15,000개의 활자를 도난당하여 신문 발간에 차질을 빚어 결국 휴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sup>74)</sup>

그러는 가운데 이중호에 의하여 권업회 발기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신문사도 재정문제로 권업회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 같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국민회 계열 인물 백원보가 1911년 6월 17일자로 안창호, 이갑 등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근일 이중호가 권업회를 설립한바 아즉 인허는 無하오나 從此得許도 有하겠다

72) 불령단관계잡건 배일신문 『대양보』 활자 설취의 건(재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1911년 9월 22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7, 30-31쪽.

73) 불령단관계잡건 조선인부 재서비리아(3) 1912년 1월 19일 블라디보스토크 방면 재주조선인 최근 정보

74) 『노령이주상태』, 91쪽.

하는데 其 목적은 農·商·公·學 四業을 실지로 행할 작정이요, 況且 신문사도 최씨네 삼숙질이 기부하겠다는 錢은 사개월 후에 出給된다 風傳이오, 신문사에 재정이 窘渴해야 정지되는 것보다 이중호씨로 합하여 견고케 하는 것이 可하다는 청년제씨의 의론이 유하여 勤業會와 권업회가 합하고 신문사도 이씨의 물이 거의 다된 듯 하외다.<sup>75)</sup>

라고 하고 있다.

그 후 1911년 12월 19일 러시아의 인정하에 공식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 한민학교 내에서 권업회가 창립되자, 권업회에서는 신문부를 따로 두어 신문 간행의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신문부 총무에 한형권, 부장 겸 주필에 신채호, 부원에 朴東軾, 李瑾鎔 등을 임명하여 신문 간행을 준비하고<sup>76)</sup>, 1912년 2월 29일에 포라노브스키, 포트스타빈과<sup>77)</sup> 듀코프를 명예회원으로 입회시키는 한편 신문 발행인을 듀코프로 정하고 순무부에 『권업신문』의 허가를 청원하였다.<sup>78)</sup> 아울러 동방학 연구소의 교수로서 한문과 한국어에 능한<sup>79)</sup> 포트스타빈에게 이 작업의 지도 감수를 요청하였다.<sup>80)</sup>

1912년 4월 4일(러력)에 개최된 1912년 제1회 총회에서는 교육, 종교, 농업권장, 노동소개, 금융 등과 함께 신문 간행을 본년도 사업으로 정하였고, 그리고 동년 4월 7일(러력)에 『권업신문』 인가장을 러시아당국으로부터 접수하였다. 이제 『권업신문』은 그 간행을 위한 모든 구비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마침내 1912년 4월 22일(러력) 『권업신문』 제1호를 석판 인쇄로 창간하였다.<sup>81)</sup>

『권업신문』은 순한글로 간행되었으며, 1주일에 1회 일요일에 간행

7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도산안창호자료(1)』, 119쪽.

76) 『노령이주상태』, 94쪽.

77) 반병률, 「포트스타빈」, 『한국사시민강좌』, 34, 2004.

78) 권업신문 1912년 12월 19일자

79) 장지연, 『해항일기』 1908년 4월 9일자

80) 권업회, 톱스크 문서보관소 소장

81) 『권업신문』 1912년 12월 19일자

되었다. 편집은 듀코프가 담당하였으며, 주필은 『대양보』의 주필이었던 신채호가 담당하였다.<sup>82)</sup> 그리고 하루에 1,400부를 발행하였으며,<sup>83)</sup> 당초 발행소는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하바로브스크 거리 올리차 제10호였으나<sup>84)</sup>, 1912년 12월에 하바로브스크 거리 올리차 20호로 이전하였다<sup>85)</sup>

## 6. 결어

유진률, 러시아어이름 유가이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구한말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한인언론을 대표하는 『대동공보』와 『대양보』의 발행인으로서 주목된다.

유진률은 1875년 함경북도 경흥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러시아로 이주하여 연해주 조선과의 국경지대인 아지미에 살고 있었다. 한국측 기록에 보면, 유진률은 일찍부터 조선에서 러시아어 통역관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1896년에 경흥에서 번역관으로, 1899년 8월 24일에는 內藏院 種牧課 주사, 1899년 8월 28일에는 궁내부 번역관보로 임명되었고, 1900년 1월 20일에는 궁내부 번역관, 1903년 4월 30일에는 주 블라디보스토크 通商事務署 서기생으로 임명되었다.

유진률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협회에서 간행한 독립신문에 여러 번 글을 투고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의 글들이 독립신문 1면에 7차례 많은 분량이 실리는 것으로 보아, 당시 유진률이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

82) 『권업신문』에는 신채호의 이름이 1912년 9월 8일자까지만 나옴.

83) М. И. Д. Императорское Японское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No.191. г. Владивосток Телеф. 550.(외무부,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영사관에서 1914년 8월 30일자로 연해주 군지사에게 보낸 전문, 톱스크 문서보관소 소장)

84) 『권업신문』 1912년 5월 26일자

85) 『권업신문』 1912년 12월 1일자

볼 수 있다. 그가 투고한 날짜는 1898년 9월 19일, 21일, 10월 15일, 17일, 18일, 11월 25일, 26일 등이다. 1898년 당시 투고자 가운데 가장 많은 투고를 한 인물이 바로 유진룰이다. 그만큼 그는 독립신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독립협회가 추구하고 있던 개화, 자주, 민권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인물이 아닌가 추정된다.

유진룰은 『해조신문』이 폐간되고 최재형이 『대동공보』를 인수하면서 그와의 친분으로 『대동공보』에 관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유진룰은 『해조신문』이 폐간되자, 차석보, 문창범 등 35인과 함께 발기하여 신문 재건을 위하여 자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대동공보』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을 선정할 때 발행인으로 선출되었다.

유진룰이 발행인이었던 『대동공보』는 안중근의거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중근은 러시아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한 인물로서 『대동공보』사 사장 최재형이 회장인 동의회의 구성원이었다. 1909년 10월 10일 『대동공보』사의 사무실에서 『대동공보』사의 유진룰, 정재관, 이강, 윤일병, 정순만, 우덕순 등이 모인 가운데 이등박문의 암살을 위한 조직이 이루어졌다.

유진룰은 『대동공보』가 1910년 8월 러시아 관헌으로부터 발행금지를 통고받고, 1910년 9월 1일 폐간되자, 러시아력 1911년 4월 26일에 자신의 명의로 연해주 軍知事에게 『대양보』 간행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대양보는 간행되기에 이르렀고, 발행인 겸 편집인에 유진룰이 임명되었다. 그 후 유진룰은 이종호와의 의견 대립으로 1911년 9월 14일 사직하기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보면, 유진룰은 러시아국적의 한인으로 개화사상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이 개화하고 문명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그 일환으로서 러시아지역 한인언론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 아닌가 한다. 즉 그는 조선인에 대한 계몽운동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한 러시아국적의 한인으로서 근대적인 민족 운동가였다고 볼 수 있겠다.

[원고투고일: 2016.8.30, 심사수정일: 2016.9.6, 게재확정일: 2016.9.6.]

주제어 : 유진률, 독립협회, 대동공보, 해조신문, 동의회, 차석보, 최재형

<ABSTRACT>

## Korean Racial Movement in Russia and Yoo Jin-ryoul

Park, Hwan

Yoo Jin-ryoul, whose Russian name is Yugai Nikolai Petrovich, attracts attention as a publisher of Daedong-Kongbo and Daeyang-Bo, which represent Korean press in the Maritime Province in Russia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Yoo Jin-ryoul was born in Gyeongheung in North Hamgyeong Province, Korea, in 1875. He moved to Russia and lived in Agimi, which is a border area. According to remaining records in Korea, Yoo Jin-ryoul seems to have worked as a Russian interpreter in Joseon from the early stage.

It is interesting that Yoo Jin-ryoul submitted several times to The Independent, published by the Independence Club, in Vladivostok. You can see the status of Yoo Jin-ryoul back then from lots of writings of his that were published seven times on the front page of The Independence. As well, he is also estimated to have been a figure deeply interested in enlightenment, autonomy, civil rights, etc. pursued by the Independence Club.

It is estimated that Yoo Jin-ryoul came to be involved in Daedong-Kongbo because of closeness to Choi Jai-hyung as Haejo Shinmun was discontinued and Choi Jai-hyung acquired Daedong-Kongbo. When Haejo Shinmun was discontinued, Yoo Jin-ryoul initiated with 35 others including Cha Seok-bo and Mun Chang-beom to develop fundraising for reissuance of the newspaper. He held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at Daedong-Kongbo Company, and was elected a publisher when executives were selected.

Daedong-Kongbo, for which Yoo Jin-ryoul was a publisher, is known to be related to the movement of Ahn Jung-keun in a certain way. Ahn



Jung-keun developed activities of an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in Russia, and was a member of Dong-eui-hoe whose chairman was Choi Jai-hyung, the president at Daedong-Kongbo Company. The group for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was organized on 10 October 1909 when Yoo Jin-ryoul, Jung Jae-kwan, Lee Kang, Yoon Il-byung, Jeong Soon-man, Woo Duk-soon, etc. gathered in the office of Daedong-Kongbo Company.

In conclusion, Yoo Jin-ryoul was a Korean with the nationality of Russia and the thought for enlightenment. He is estimated to have recognized that education was important for Joseon to be enlightened and civilized and to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press in Russia as a part of that. That is, he can be viewed as a Korean modern racial movement activist with the nationality of Russia who have recognized that the enlightening movement for the Joseon people was desperately necessary more than anything else.

Key words : Yoo Jin-ryoul, Independence Club, Daedong-Kongbo, Haejo  
Shinmun, Dong-eui-hoe, Cha Seok-bo, Choi Jai-hyung,

